첫 장맛비에 광주천 공사 현장 토사 유실… 주민 '불안'

서구 광주천 동천교 일대 공사 현장
가림막으로 보강 불구 토사 휩쓸려
시민, 장마 기간 산책로 붕괴 우려
광주시,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천 동천교 일대의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사업 구간이 최근 내린 장맛비로 토사가 대규모로 유출됐다. 비가 내리기 전 현장(왼쪽)과 비가 내린 후 제방이 무너지고 토사가 휩쓸려간 모습.

지난 주말 첫 장맛비로 인해 광주천 동천교 일대 공사 현장에 쌓아놓은 토사가 빗물에 휩쓸리면서 엉망진창인 상태로 변했다. 현장은 장마가 온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가림막 정도의 대비책만을 세워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주민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주말 이틀동안 쏟아진 비에 토사는 무너졌고 가림막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

23일 오전 찾은 서구 광주천 동천교 일대.

지난 주말 쏟아진 호우로 인해 토사가 휩쓸려간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산책로는 빗물이 고여있고 진흙밭으로 변해 발이 푹푹 들어가기도 했다.

공사 현장 건너편에서 산책을 하는 시민들은 있었지만 토사가 유출된 구간을 오가는 시민들은 없었다. 일부 시민들은 토사가 쌓여있는 곳을 우회하거나 산책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인근 주민 임지영(60대)씨는 "이곳은 자주 산책을 하는 곳인데다 앞 징검다리는 매일 이용하고 있다"며 "비가 오기 전에 수해 예방 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쓸려갔다.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문모(66)씨는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불편하다"면서 "지금도 공사 구간 산책로 환경이 엉망인데 장마 대책조차 제대로 안 세우고 있어 호우가 쏟아지면 공사 현장 전부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는 분류식 하수처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 효율과 광주천 수질 개선을 목표로 광주천 우안 무진교~광천2교 부근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90억원으로, 국비 143억원(30%), 시비 347억원(70%)이 투입됐으며, 사업은 A-Line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1구간은 공사를 마쳤고 2구간은 지난 2023년 6월 착공돼 세 차례에 걸쳐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천교 쪽이 바로 'A-Line 2구간'이다.

이곳은 장마 전 부터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곳이다. 지난 5월까지도 중장비 등 각종 자재들이 장기간 적치돼 산책로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홍수기 시작 전인 지난 21일까지 중장비, 모래주머니 등 자재들을 모두 철거하고, 장마 기간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일부 구간에 하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하천과 맞닿아있는 호안을 가림막으로 덮어 놓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런 보강조치로는 턱도 없었다. 단 이틀간의 비로 인해 토사 유출은 물론이고 가림막 조차 휩쓸려가 찾아보기도 힘든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마기간 강우 전후로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호안 부분이 손상되면 즉시 장비를 투입해 복구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들은 "예방을 할때 제대로 하지 않으니 결국 세금을 더 투입해 이중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저 토사를 치우는 것도 세금이고 다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세금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이 어딨느냐"고 성토하고 있다.

한편 장마는 24일 다시 시작된다. 이번 비는 전국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며 광주·전남에는 24일 새벽부터 25일까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20~60㎜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법원, 조합장 선거 후보자 범죄경력 신문광고 위법 판결

法 "낙선 목적 있다"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실은 신문광고는 불법선거운동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전남의 지역신문에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기재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에서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지역 내 조합장 선거에 나선 여러 후보자 중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범죄경력은 선거공보에 실을 수 있고, 광고 게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건 광고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가리킨다"며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법원, 위장전입 후 아파트 청약 당첨 50대에 징역 4개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소재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한 지역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장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전남 완도서 경운기 주택 담벼락 충돌… 운전자 숨져

경운기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다.

23일 오전 10시 46분께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의 한 골목길에서 경운기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운전하던 70대 A씨가 충격으로 골목길로 튕겨 나갔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혼자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승우 기자**

광주경찰, '노쇼사기' 조직 본격 추적 나서

전담수사팀 꾸려 3명 구속
129건… 피해액 20억 육박
군인·정당 사칭 피해 잇따라

광주경찰이 공공기관이나 정당을 사칭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리구매를 요구한 뒤 금전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집중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22일 총 8개팀 41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뒤 현재까지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입건했으며, 4명을 추가로 추적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과 연계해 수백 대의 휴대폰을 연결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은신처를 매달 옮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처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움직였다. 피해자 유인을 담당하는 팀, 해외전화를 국내 발신처럼 위장하는 팀, 피해금을 세탁하는 자금팀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돼 있었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지난 4월 이후 급증해 6월9일 기준 총 129건에 달하며, 누적 피해액은 약 2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사칭 대상은 군인, 교정, 소방기관 순으로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을 사칭한 사례도 6건 확인됐다.

경찰은 이 조직이 피해자의 직업군을 미리 파악한 뒤 식당뿐 아니라 식자재, 소방자재, 컴퓨터 업체는 물론 약국, 철물점 등 다양한 업종을 겨냥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범행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로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본래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받을 경우는 100% 사기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외식업중앙회, 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사례 및 예방법을 공유하고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정유철 기자**

광주 아파트 주자창서 싱크홀 발생

인명피해 없어

광주 한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행정 당국이 파악에 나섰다.

23일 낮 12시 1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의 뒷바퀴가 싱크홀에 빠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구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서구 관계자는 "기본적인 조치는 완료했다"며 "싱크홀의 크기나 깊이,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싱크홀에 빠진 차량 뒷바퀴. **연합뉴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